

■ 송기진 광주은행장 내정자 특별 인터뷰

# 中企·자영업자 공격적 지원 초우량 은행 기틀 마련할 것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전남 경제의 ‘활’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18일 송기진 광주은행장 내정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광주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사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호(SOHO)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내정자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 ▲자영업자 대상 상품 출시 ▲카드 및 외환부문 강화 등을 통한 은행 수익성 개선 등에 대해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특히 송 내정자는 우리은행 기업 금융부문 부행장 출신답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송 내정자는 우리은행 재임 당시 ‘하이테크론’과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등의 특화 상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서 국내 중소기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송 내정자는 “광주은행의 경영방식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지역 기업이나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며 “지역민들과 성장을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통해 ‘슈퍼 리저널뱅크(Super Regional Bank)’ 도약을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송 내정자는 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활성화 여부에 지역 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광주은행의 기업 대출(6조2천368억원) 가운데



中企 대출 비중 70%까지 확대  
창업·운전 자금 ‘원스톱서비스’  
산단 활성화도 발 벗고 나서겠다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재 60.9%(3조8천400억원)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내정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은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다”며 “지역 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은 타 사·도에 비해 경제 기반은 취약하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광주·전남의 산업단지 70곳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새로 신설되는 산단의 활성화에도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역 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산단조성 때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창업·입주·운전자금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물론, 업체별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 하기 위해선 조직운동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한편 복지나 후생 문제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내정자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제10대 광주은행장에 취임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월 수출 광주 2.9% ↑ ·전남 16% ↑

### 각각 9억달러·28억달러 실적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화물연대 파업 등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8일 광주세관이 내놓은 ‘2008년 5월 광주·전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5월 수출액은 각각 8억9천600만달러, 28억8

천300만달러로 전월대비 2.9%, 16.8% 늘었다.

광주 수출은 승용차(2억900만달러), 반도체(1억8천500만달러), 가전제품(1억7천만달러), 기계류와 정밀기기(9천400만달러), 타이어(9천100만달러) 등이 주축했다.

전남은 석유제품(11억2천200만달

리), 유기 및 무기화합물(3억6천만달러), 철강제품(3억5천500만달러), 인조플라스틱 및 제품(3억2천500만달러), 수송장비(2억4천만달러) 등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무역수지는 광주가 4억1천3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03년 4월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12억400만달러 적자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도, 170억원대 투자협약

### 김가공 업체 안성씨푸드·제빵원료 업체 선인과 체결

전남도가 18일 친환경 제과·제빵 원료생산 전문업체인 (주)선인, 국내 김 가공 중견업체인 (주)안성씨푸드와 170억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이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주)선인 이효근 대표이사, (주)안성씨푸드 박성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

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선인은 담양군 일원 1만㎡ 부지에 100억원을 투자, 제과·제빵 원료 생산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이를 통해 5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원자재를 계약재배 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성씨푸드는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에 부지 1만3천㎡를 확보, 70억원을 투입해 김 가공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 가공 공장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 김 수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주건설은 18일 담양다이너스티CC에서 이승구 사장 등 4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주건설, 우수 협력업체 시상

### 최우수 한국종합전기 ... 모두 16곳 선정

대주건설은 18일 담양군 담양다이너스티CC에서 이승구 사장, 오용화 부사장, 박현규 전무 등 임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가졌다.

이 시상식은 기념사를 통해 “대주건설이 명문 건설사의 반열에 오른 것은 협력업체들의 헌신적 노

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기통신업체인 (주)한국종합전기(대표 김동현)가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 ▲신용토건(대표 박용범) ▲효림산업(대표 박일영) ▲남부토건(대표

윤상백) ▲선두개발(대표 김종수) 등이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또 ▲이노건설(대표 강성주) ▲태라산업(대표 이상형) ▲서로건설(대표 박진수) ▲동광그린도어(대표 김종휘) ▲다은건설(대표 이동구) 등 총 10곳의 외주업체가 우수협력업체가 됐다.

자재업체의 경우 신영(대표 조영민)과 태원건재(대표 김종환), 태건정공(대표 김재문), 성암(대표 염창근), 태정(대표 이계정), 동양가설산업(대표 이용덕) 등 6곳이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북구 임동·유동 39층 아파트 짓는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통과 사업 추진 ‘급물살’

광주시 북구의 대표적 구도심인 임동·유동 일대가 광주·전남지역 최고층 아파트 밀집한 신촌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조감도>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임동·유동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 4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동·유동 정비사업은 광주·전남 최고층인 39층 아파트 건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거동과 상업동간의 거리가 최대 100m에 달할 만큼 쾌적



한 주거지로 조성된다.

‘도시재생’을 테마로 정상급 디자인이 단지 및 아파트 조성에 나선 예정이다. 광주전 조망권과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이공계 대학생 中企 현장체험 연수

### 올해 6개교 240명 규모 확대 실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올 여름방학중 실시되는 이공계 대학생의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 체험 연수를 지난해 4개 대학 137명에서 6개 대학 240여명 규모(전국 63개 대학 2천300여명)로 확대 실시한다.

참여대학은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호남대·순천대·목포대·동신대 등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체험은 이공대생이 방학기간 중 정규학점(2~3

학점) 취득과정으로 3~4주간 기업 현장에서 전공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역동성과 발전가능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체험대학을 지정, 지역대학 이공대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공계 대학생의 기업현장 체험연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취업유도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보존식 관리 지침(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

우수 국내 기술력의 자존상. 최첨단 전국 A/S시스템

## 국내유일 냉동보존식전용 디지털 냉동보존고

대리점 모 집 순천, 여수, 광양지역 대리점  
목포, 나주, 무안지역 대리점

푸른유통 0452-7110-385-2939 1588-6739